

역대 최고 성과 '특검' 마무리 수순

이규철 특검보 '90일이 금방 지나'... 3일까지 출근... 파견 검사들 현업 복귀·잔류 검사 규모 곧 확정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공식 수사종료일인 지난달 28일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특검에 따르면 지난 90일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은 오는 3일까지만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한다.

그간 파견 근무를 했던 검사들은 내주부터 현업에 복귀하며, 공소유지 업무까지 이어갈 인원들은 다음주 중 새 특검 사무실로 이주하게 된다.

매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됐던 특검팀 정례 브리핑도 이날이 마지막이다.

수사 종료를 앞둔 박영수 특검의 이날 출근 시간은 오전 8시48분이었다. 박 특검은 수사종료 소감을 묻는 질문에 "정리 다 되면 (하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또 이규철 특검보는 "90일이 금방 가벼웠다. 다들 고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잔류하는 파견검사 여부는 오늘(28일) 법무부에서 답변이 올 것"이라며 "이사항 사무실은 이번 주에 정할 것 같다. 다음주에 할 예정이고 그 전까지는 이쪽 사무실로 출근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수사팀장도 밝은 표정이었다. 그는 "여러분 덕분에 열심히 잘 하게 된 것 같고 감사다"며 "(수사 결과를) 검찰로 이관하고 수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의 '안살림'을 맡았던 어방용 수사지원단장도 "앞으로 보름 정도는 이쪽



'고마워요 특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만료일인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주차장 앞에 '고마워요 특검, 우리 다시 만나요'라고 적힌 꽃 바구니가 놓여져 있다.

사무실로 출근할 것 같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90일간 수사 상황을 보도했던 취재진과 오는 3일 점심 자리를 갖고 '작별인사'를 할 예정이다. 오찬은 특검팀

사실 인근 증식당에서 박 특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며, 비용은 참가 언론사가 나중에 각자 정산기로 했다.

특검팀은 지난 90일 동안 역대 최고 성과

를 거두며 이날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현재까지 전·현직 장관급 인사 5명과 이부회장 등 13명을 구속하고 13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양현섭 도당위원장 합의 추대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은 지난 28일 제4차 도당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북도당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양현섭 후보를 새로운 도당위원장으로 합의 추대했다.

전북도당은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최종 승인을 요청했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새로운 도당위원장 선출 절차가 대략 마무리됨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내 대선 준비를 위한 대대적인 조직정비와 체제 전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재홍 기자

국민의당 전북도당, 대선공약정책기획단 회의 개최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빨라진 대선 시기에 맞춰 대선공약정책기획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김광수 도당위원장, 최영호 정책실장, 정진숙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전북지역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전원 참석해 전북지역에 쌓인 현안들을 대선공약에 넣어 '전북 First' 현실화 작업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발표된 전북 11대 핵심공약을 가다듬고 발전시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논의가 이뤄졌다. /인재홍 기자

정 의장, 4야 특검법 직권상정 요구 '거부'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정의당 등 야당 원내대표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 의장과 만나 특검법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특검 연장 위한 길이 있으면 하고 싶다"면서도,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서 난색을 표했다고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정 의장은 "현행 특검법에 부처 넣어 소급 적용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많고,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해 부칙을 넣는다고 해도 논란이 많다"며 "지금 법사위원 17명 중 3명이 자유한국당이고 나머지는 야당이기에 때문에 법사위 심의를 통해 본회의에 넘겨 처리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의장이 직권상정 요구를 수용했을 경우, 이후에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다"며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황교안 대통령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실효성 문제도 있어, 결국 직권상정 한다 해도 혼란만 가중시키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특검 주요 성과 '문화계블랙리스트' 수사에 가장 공들여

삼성, 처음 오너 일가 구속
정유라, '국민 공분' 특혜 규명
비선진료, '미용 기술' 사실로

연상할 만큼 기가 막혔다.

김기춘 전 실장은 2013년 8월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중북세력이 문화계를 15년동안 장악했다"며 "CJ와 현대백화점 등 재벌들도 줄을 서고 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 12월에는 블랙리스트 작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김 전 실장은 "반정부·반국가적인 성향의 단체들에 현 정부가 지원하는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은 2014년 1월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에게 "전투 모드를 갖추고 불퇴전의 각오로 좌파 세력과 싸워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다만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운영에 대해 박 대통령이 관여한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을 구속하거나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모자로 적시했다. 또 최순실씨 역시 일부 피의

사실의 공범으로 이름을 올렸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9월30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좌편향 문화 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업을 주도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뇌물죄 관련 수사는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수사한 분야로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뇌물수수자였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공여자였다. '최순실게이트'의 본질을 관통하는 수사가 바로 뇌물죄 부분이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을 우선 타깃으로 정하고 수사를 벌였다.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는 데 중심축 역할을 담당했고, 최씨 일가에 가장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7일 구속됐다. 정유라 특혜 의혹도 규명했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21)씨가 교육 과정에서 받은 온갖 특혜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폭발시킨 진앙으로 꼽힌다. 특별검사팀은 국민들 분노를 달래주듯 주요 혐의자들을 구속하며 성과를 냈다.

출범 초반 수사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던 특검팀은 정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에 주목했다. 온갖 특혜를 받은 정씨는 '돈도 실력'이라는 글을 SNS에 게재한 사실이 알려지며 전국의 학생 및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태였다.

이에 특검팀은 공식 수사일 첫날 브리핑을 통해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무효화 조치에 나섰다"고 공표함으로써 여론을 끌어안는 데 성공했다.

정씨 이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 전 총장을 비롯해 김경수(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 이인성(54) 교수, 남궁권(56) 전 이대 입학처장 등이 구속되거나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외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 사실을 밝혀내는 등 수사 성과를 냈다. /뉴시스

지난 28일 활동을 마무리짓게 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는 역대 특검들 중 가장 큰 성과를 거뒀다.

그 중 '문화계블랙리스트' 수사는 뇌물죄 부문과 함께 특별검사팀이 가장 공을 들인 수사로 꼽힌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정부에 비우호적인 문화계 인사 약 1만명의 명단을 적은 문서를 일컫는다. 박근혜 정부는 이 문서를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는 용도로 활용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수사도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운선(51)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등 5명을 구속했다.

특검팀의 수사결과 밝혀진 블랙리스트 운영의 전모는 구시대 독재정권 시절을

여야, 3일~4월1일 임시국회 합의

여야는 3일부터 4월 1일까지 30일간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지난 28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긴급 현안질문은 3월 16일과 17일 오후 2시 실시한다. 질문 의원 수는 10인, 답변시간을 제외한 질문시간은 10분으로 한다. 본회의는 3월 28일과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다. /뉴시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이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바라보면
행복한 교육 공동체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육지력'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